

---

# 2024 6월 요셉의 창고 기도편지

---

20240619

샬롬

주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 
기도 덕분에 미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

세계 복음 선교 연합회 (WEMA) 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, 텍사스 어스틴 안디옥 교회에  
서 “구원의 클라이막스, 이스라엘의 구원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로서는 첫 설교를 하였  
습니다.

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의 시간 속에서는 큰 위로와 쉼을 얻었습니다.  
(사진 공유합니다)

기도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으며 헤즈볼라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전면전  
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사이 4명의 인질이 구출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.

이스라엘군이 인질 구출 후에 발표한 “단 한번도 그들을 잇은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  
었다”는 뉴스 헤드라인을 보며 제 안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.

마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되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

한편 이스라엘 내 반 정부 시위대가 도로를 막고 인질협상과 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며 경제적 어려움 등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

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취지길, 그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

요셉의 창고는

군인들을 돕는 하이웨이 6 스테이션의 요청에 의해 무더위를 식힐 냉방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.(영상)

스테이션을 지키는 자원 봉사자들도 길어지는 전쟁과 무더위로 지쳐가는 중에 작은 것이지만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!

7, 8월은 아이들도 방학을 하고, 무더운 여름을 지내야 합니다. 더욱 더 구별된 제사장적 삶을 이 곳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
다음 세대를 위한 이스라엘 관련 교재와 책 작업에 힘을 낼 수 있도록, 주님의 지혜와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써내려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
저희도 이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.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,

신동훈, 정승은, 에덴, 유환 드림

